

향기로운 예물

♠ **십일조헌금** 기업 085-056206-04-030(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김명욱(이명숙), 김순석(임영덕), 김정배(임승주), 김정연(A이선분), 김춘화, 맹관순, 맹지혜,
문영원(이명희), 박근제(송명숙), 심혜원, 유병호(양영옥), 이월숙, 이춘취, 이한웅(김순옥),
이하철(박희영), 정운천, 조규영, 채희춘(황영옥), 최기훈(정계숙), 황상근.(총20명)

♠ **선교헌금** 기업 085-056206-04-086(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강평화, 김경열, 김순석(임영덕), 김춘화, 맹지혜, 박희영, 배경철, 석형기, 손정아, 신경숙,
안금자, 유현호(이영미), 윤영준(박진숙), 이명희, 이영숙B, 이창규(곽정순), 이한철,
임흥문(박금옥), 조옥자, 최기훈, 최봉순, 최성현(윤정자), 드보라여전도희.(총23명)

♠ **감사헌금**

이필재, 강희숙, 공인석(김명숙), 김기안(하세련), 김기택(배숙자), 김병음, 김순석(임영덕), 김영진, 김준구(이소은), 김현구(서재희), 맹지혜, 박권재, 박부웅(최귀남), 박순자, 박종삼(양영원), 백준자, 서재희, 석애자, 성미영, 오택현(김윤주), 유광희(박찬홍), 윤병호(이명옥), 윤예찬, 이기자, 이선분, 이명숙, 이월숙, 이찬호, 이춘희, 이효숙, 전순봉, 정경석(박지순), 채명업, 박희준, 최현옥.(총36명)

♠ 일천번제한금

이진우, 이필래, 김민성, 김민혁, 김수현, 김유준, 김정훈, 김준현, 김지훈, 김형숙, 김춘화,
김해란, 민국희, 박순자, 박은숙, 박혜진, 박희영, 백경자, 송백현, 신지현, 신현진, 심순옥,
안지영, 양영옥, 양일석, 이강우, 이경자, 이기자, 이노을, 이설아, 이승예, 이옥남, 이인숙,
정옥순, 정승현, 정혜지, 주성택, 최귀남, 최봉순, 최선미, 홍은민, 홍준민, 황영옥,
무 명. (총 42명)

주간 성경연구 * 새벽기도회 본문입니다 *

13주: 마태복음 28장 1절 ∨ 에스겔 30장 26절			
주 일	마태복음 28장 1 - 20절		
월요일	에스겔 25장 1 - 17절	목요일	에스겔 28장 1 - 26절
화요일	에스겔 26장 1 - 21절	금요일	에스겔 29장 1 - 21절
수요일	에스겔 27장 1 - 36절	토요일	에스겔 30장 1 - 26절

원로장로	이태일			
시무장로	정기성 윤조훈 방석태 윤병호 강영성 김병을 최기훈 윤정호 배경철 임만순			
은퇴장로	오만식 방현욱 장명원 이해석 정공식 이원가 문영원 이일로 천세력			
교역자	부 목 사	윤희진 김성종		
	전 도 사	이필례		
	교육전도사	문수경 이송이 최유경		
찬 양 대	지 위 자	할 켈 루 야 : 김한나 호 산 나 : 김안나 시 온 · 에 덴 : 최원지 엔 젤 : 이난수		
	반 주 자	오르간	심혜윤	
		피아노	김민지 김미희 유광희 주혜정 정해지 공희라	
		클라리넷	박진숙 이난수	
		플루트	김민지	
	솔 리 스톱	김안나 박예은 조상현 고광훈		
선 교 사	파송선교사	태 국: 김정숙 수리남: 안석철 미 국: 김다니엘 미 국: 최옥희	이집트: 김신숙 A X 국: 김해월 A X 국: 이분목 A X 국: 박동권 김명화	
	협력선교사	태 국: 박영성 정세미 멕시코: 김흥기	태 국: 박경환 이순연 A M A : 조동진	
협력교회	제주 대광장로교회			
협력단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세계선교회(G.M.S.), 서울남도회 목양성교회, 소망교도소, 영등포시활화회 용정세계선교회, 서울남도회 G.M.S., 오픈도어선교회			

2016. 3. 20 주일 예배 설교

그리스도의 순종

설교: 이진우 목사

마사야 53장은 메시아의 수난 장으로 십자가를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세밀하고, 분명하게,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바로 오늘로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본문 7절 말씀을 통해 보며주고 있는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해서 살펴보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 이아침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 그는 고난 속에서도 침묵하셨습니다.(7절)

본문 7절에서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움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
으로 끌려 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
고 했습니다. 여기 “곤욕을 당하여”(苦死)는 스스로 곤욕당하도록 내맡기겠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중”의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원하여 받은 것입니다. “그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
또한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인내하고 견디고 참아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셋째마네 동산에서
잡히신 예수님께서서 생매도죄 공회와 헤롯과 빌라도에게 끌려 다니며 온갖 수치와 고난을 받으
셨습니다. 그 공회에서는 거짓증인을 세워 유다의 최고의 죄인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으로 정죄하
고 주적으로 때리고 손을 뺨을 때리며 침을 뱉고 수치와 모욕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수치와 모욕과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께서는 침묵 하시며 오직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실 때도 변명하지 않으시고 침묵을 지
키셨습니다. 침묵 또한 거룩한 순종입니다.(히 65:6-9) 참된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주
신 사명에 순종하되 말로 하는 것이 아닌 오직 침묵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
며 은혜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2. 그는 순종하심으로 스스로 희생당하셨습니다.

모든 6절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죄 값으로 죽음을 당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 값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 택함받은 자녀들을 구원하셨습니다. 8절에서 “그는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골라 갔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곤욕”이라는 히브리말은 “오체로”로서 “강압, 구금, 감금”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신약에 비추어 볼 때 “체포”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것입니다. 아무튼 “죽은”은 불의한 자들에 의해 불법적인 과정을 밟아 사형언도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아 빌립보서 3장 8~9절에 “또한 모든 것을 छो려 버리고 내게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외치며 스스로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그 은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 희생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증거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스스로 희생하사 생명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뜻입니다.

3. 그의 순종은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었습니다.

본은 9절에서 “그는 강도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도다 그의 무덤이 악인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예언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점일획도 남김없이 다 지키실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에 참 의인으로서 죄인을 위한 대속적 죽음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철저한 순종으로 이제 그를 믿은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인정 받게 된 것입니다.

모든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과연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바울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며, 세상에 가치를 두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히 예수님의 참 제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야 합니다.

이를 왕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후, 자기변명을 할 때 사무엘 전지자는 사무엘상 15장 22~23절에서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실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와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더.”라고 책망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SINCE 1975

No. 42 – 13

2016. 3. 27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Sung - Hy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은혜위에 은혜러라” [요한복음 1장 16절]

목표: 1.진리 파수 2.천국일꾼 양성 3.민족 복음화 4.세계 선교

동산의 샘

A garden fountain

생수의 우물

A well of living

흐르는 시내

Flowing streams

[아가 4:15]

담 임 목 사 Senior Pastor	이 진 우 Yee, Jin Woo
---------------------------------	--

- 0823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마길 18(개봉동)
- 18Gyeongin-ro 33Ma-gil, Guro-gu, Seoul, Korea
- 교회사무실: 2613-2080 / 2683-2080 / 070-8658-2080
- 팩 스: 2689-1230
- 홈페이지: www.sunghyeon.or.kr

